

올해 추석 선물세트 과일류 선호 높아

aT, 추석 성수품·선물세트 구매의향 조사 결과 발표

올해 추석 구매의향 선물 세트로는 사과 1위, 과일 혼합세트가 3위를 차지하는 등 과일류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 리서처를 통해 '추석 성수품·선물세트 구매의향 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추석 귀성 의향은 47.1%로 지난 설(45.5%)과 유사하며, 작년 추석(31.6%)에 비해 크게 늘었다.

추석 선물 세트의 구매 희망 품목은 사과 26.2%, 소고기 16.2%, 과일 혼합 12.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설의 과일 혼합 22.4%, 소고기 10.3%, 사과 9.6% 순과 비교해 신선과일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높았으며, 특히 사과 단품의 수요가 늘었다.

작년 추석에 소고기 21.4%, 건강기능식품 16.8%, 사과·배 혼합 12.2%가 상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명절 선물로서 사과 등 과일류의 인기가 높아졌다.

최근 사전 예약 시 할인 혜택을 주는 등 유통채널별로 선물 세트 사전 예약을 늘리는 추세다. 선물 세트 구매 예정 시기는 연휴 1주 전 45%, 연휴 시작 즈음 26.8% 순으로 나타나 명절이 임박해 구매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았다.

한편 성수품 구매 의향에서는 구매 품목이 소고기 30.3%, 나물류 16.6%, 사과 14.8%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매 예산은 10~20만 원이 31%, 20~30만 원이 24.7% 순으로 지난 설과 유사했다.

구매채널(응답)에 대해서는 선물 세트와 성수품 모두 1순위로 대형마트가 각각 71.4%, 70.5%로 매우 높았다. 2순위 구매처는 선물 세트가 온라인 전용몰 34.3%, 성수품은 재래시장 36.7%로 나타났다.

aT 문인철 수급 이사는 "이번 추석에도 우리 농수축산물과 지역특산물로 선물하길 강력히 추천해 드린다"라고 말했다.

추석 성수품·선물세트 구매의향 조사 결과는 카미스(KAMIS, 농수산물유통정보) 누리집(kam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만호 기자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지난 22일 농축협 상임이사와 전무를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상호금융 사업추진 방향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상호금융 사업추진 방향교육' 개최

농협상호금융, 농업인과 지역사회의 동반 성장 촉진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지난 22일 농축협 상임이사와 전무를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상호금융 사업추진 방향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4년 상반기 사업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하반기 사업추진 방향 제시 및 중앙본부 김경섭 팀장(여신투자심사부)과 김성필 팀장(대체투자부)으로부터 상호금융 핵심 이슈 및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한 특강이 함께 진행되었다. 이 특강에서는 경제 전문가가 하반기 경제 상황을 전망하며, 이에 따라 농축협이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전북농협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캠페인을 통해 쌀 소비의 중요성을 재차 인식하고, 적극 동참하기로 다짐했다.

/김옥기 기자



aT, 칭다오 물류센터 운영 사업자 삼양로지스틱스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중국 칭다오에 운영 중인 aT한국농수산식품물류센터의 신규 위탁운영사로 삼양로지스틱스를 선정했다.

aT한국농수산식품물류센터는 지난 2014년 대중국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aT가 중국 수출의 관문 도시 칭다오에 설립한 복합물류 시설로, 연면적 2만 5719㎡ 규모에 자운 창고와 상온 창고, 온라인 소포장 fulfillment 체계를 갖추고 있다.

삼양로지스틱스는 삼양식품과 계열사의 완제품·원자재 물류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이번 계약을 통해 칭다오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중국 주요 거점에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며 월드체인 등 향산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오연 수출식품이사는 "식품 물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삼양로지스틱스와 긴밀히 협력해 칭다오 물류센터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K-푸드 소비시장이 중국 내륙 2·3선 도시를 비롯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1만호 기자

바이오진흥원, '2024년 호치민 메가어스 박람회 참가'

6개 기업 참가... 약 55만불 수출 상담 성과 거둬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22~24일까지 3일간 베트남 호치민 화이트파레스에서 열린 '메가어스 엑스포'에 참가해 전북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전북홍보관을 운영한 결과 약 55만불의 수출 상담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도내 농수산물 업체는 6개 기업(6개 품목)으로 조미김, 공부각, 면역건강식품 등의 제품을 홍보·전시하였으며 베트남

및 동남아 여러 국가의 바이어들과 열띤 상담을 진행했다.

최근 베트남은 홍삼, 영지버섯, 동충하초 등은 대표적으로 인기 많은 건강보조식품이며, 최근에는 한국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홍보관에 참가한 기업들은 베트남 바이어들과 적극적인 상담을 진행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참가기업들은 고창에서 장어잡음을 생산하는 A기업의 경

우 베트남 현지 바이어인 S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30만불 가량의 발주를 하반기에 기대하고 있으며, 전주에서 조미김 생산하는 B사의 경우 베트남 내 식자재를 유통하는 바이어와 미팅이 이루어져 역시 하반기 발주를 기대하고 있다.

박람회에 참가한 A기업 관계자는 "이번 메가어스 박람회 참가를 통해서 베트남 시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베트남 내 많은 바이어를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B기업 관계자는 "베트남 시장 상황이 한국 및 전북제품에 긍정적인 만큼 도와 진흥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우수한 건강식품이 베트남 시장과 동남아 지역에 진출하기를 희망한다. 박람회가 끝난 이후 기업이 추가적으로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LX공간정보연구원,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LX공간정보연구원(원장 곽희도)은 지난 23일 혈액 수급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자 LX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헌혈인구 감소와 중증 수혈 환자 증가에 따른 혈액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연구원 소속 임직원 50여 명이 참여했다.

임직원들은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제공한 헌혈 버스에 올라 직접 헌혈하거나 그간 모아 온 헌혈증을 기

부하는 등 한마음으로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

특히 이날 헌혈운동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기존에 헌혈 후 수령하던 기념품 대신 그 금액만큼 기부되는 헌혈 기부권을 이용해 의미를 더했다고 전했다.

곽희도 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LX공간정보연구원(원장 곽희도)은 지난 23일 혈액 수급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자 LX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주시-농어촌공, 기지제 수변 수질개선 박차

전주시(시장 우범기)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정문)는 지난해 12월 체결한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성 개선과 저수지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 일환으로 민성동에 위치한 기지제 수변공원에 대해 상반기에 수질개선 행사를 위한 수초제거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기지제는 도심내 수변공원으로 부영양화와 토사유입으로 수초와 수생식물의 과잉번식으로 경관 저해 및 악취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금



기지제 수변 수초제거 작업

년 계속된 폭염으로 인해 수초와 수생식물이 번성하여 향후 녹조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수초제거를 실시, 수초 제거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깨끗한 주변 환경을 조성,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환경정화활동 나서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는 지난 21일,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과 농신보 남원권역보존센터(센터장 이성로),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전북도본부 남부사무소(소장 이지영) 임직원 30여명 등이 남원농협 육묘장 및 인근 마을에서 합동 농촌일손돕기 및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

혔다.

이날 활동은 농업인 일손 경감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것으로, 남원농협에서 가꾼 배추 모종을 농업인 7,500여명에게 1인당 1관을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한 포장 및 운송작업과 인근 마을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